

“클래식, 영상으로 친해지세요”

클래식과 친해지고 싶는데 혹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올 한해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을 꾸준히 찾아보자.

최근 한 독자의 도움으로 200만원 상당의 50인치 TV를 마련한 베토벤은 클래식 음악 대중화를 위해 음악과 영상이 어우러진 '베토벤 금요 영상음악 감상회'(이하 감상회)를 시작했다. 52주 일정으로 짜인 '대장정'이다.

11일 '음악 속의 유머'로 닷을 올린 감상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길라잡이로 나선 이는 안철(59·금호고 교사) 씨다. 이미 52주의 프로그램을 모두 마련해 돌정도로 감상회에 애착을 갖고 있는 안 씨는 KBS 광주 FM '노래의 날개 위에'의 '주제가 있는 음악 여행'이라는 코너를 4년 가량 진행하며 클래식 음악 소개를 맡았던 클래식 마니아다. 클래식 관련 DVD 1천500장, CD 4천장을 보유하고 있는 안 씨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행복한 음악의 보물창고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든다.

매력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바로 집중탐구다. 2~3월에 진행될 비제의 '카르멘'이 대표적이다. 첫주에는 오페라 '카르멘'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감상하고 이후 비제의 음악을 모티브로 삼은 아이스발레와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다양한 버전'의 카르멘을 만난다. 또 33개의 오페라에 등장하는 33명의 소프라노를 세 차례에 걸쳐 소개하며 10월과 11월에는 가을에 듣기 좋은 브람스의 교향곡을 집중 소개한다.

거장들을 추모하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1월 25일에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등 2007년에 타계한 음악가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며 탄생 100주년을 맞는 명지휘자 카라얀(4월 11일), 탄생 150주년을 맞는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12월 11일), 탄생 100주년을 맞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요이스트라흐(9월 12일)를 기리는 감상회가 준비돼 있다.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에서는 매주 금요일 영상음악 감상회를 개최한다. 지난 7일 열린 특별감상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오페라 길라잡이 DVD를 감상하고 있다. /위취량기자 jrwi@kwangju.co.kr

매주 금요일 '베토벤'서 영상음악 감상회 다양한 주제로 52주 프로그램 벌써 준비 클래식 마니아 안철씨 길라잡이 나서

시기와 맞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있다. 18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빈 신년음악회의 하이라이트(1967~2007) 장면을 보여주며 살날 즈음에는 '판소리 흥보가 하이라이트'(2월 8일)를 감상한다. 또 여름에는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이 어우러진 아이스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만날 수 있다.

또 캐나다의 예술 서커스 '퀴담', 뮤지컬과 고전영화로 만들어진 '노트르담 드 파리' 등 아름다운 음악과 어우러진 다른 장르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으며 음악 감상회의 마지막은 '송년음악의 대명사'로 꼽히는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으로 마무리 한다.

감상회에서 소개되는 영상은 단일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 각 주제에 맞게 안씨가 수많은 DVD를 보며 직접 편집한 것들로 일부 주제의 경우 1~2개월이 걸리는 지난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안 씨는 "이번 감상회를 통해 클래식 인구가 한명이라도 늘어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며 "아카데미한 분위기가 아니라 주제에 맞게 영상으로 클래식을 접하게 때문에 초보자들도 흥미 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222-8410.

한편 매일 한차례씩 상무지구에 위치한 한울림(062-375-2214)에서도 감상회가 진행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예인들, 입양아와 체온 나누다

사진작가 조세현씨 오늘부터 롯데화랑서 전시

김정은·윤은혜 등 입양아 안은 모습 담아

유명 연예인들이 사회복지 시설의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사진 작가 조세현씨가 김정은, 윤은혜 등 인기 연예인들이 입양아와 체온을 나누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전시한다.

조세현은 11~23일까지 광주롯데화랑에서 '사랑의 사진전'을 연다. 사회복지 시설의 아이들이 국내 가정에 입양돼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기원하는 전시회이며, 대한사회복지회와 함께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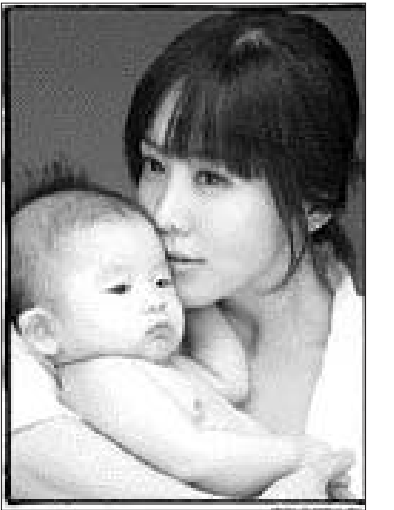
국내 연예인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사진 작가인 그는 피사체에 갖든พลัง을 잘 살려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에서도 아기를 품에 안은 연예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툇씬 풍겨나고 있다.

이미연, 김정은, 윤은혜, 한혜진, 이

태란, 이진, 주지훈, 장혁, 권오중, 서경석, 이승기, 원더걸스, 윤상현, 낸시랭, 박정아, 유준상·홍은희 부부 등 16명의 연예인이 모델로 나섰다. 이들이 미혼모의 아기, 장애아를 감싸 안은 모습이 고스란히 흑백 사진에 담겼다.

조씨는 지난 2003년부터 입양아를 찍어오고 있으며 사랑의 사진전은 이번이 5회째. 이번 사진전은 롯데화랑이 후원하며, 전시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치료비와 수술비 및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쓰인다.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한 조씨는 1992년 올해의 패션사진가상을 받았으며, 상명대 경일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한편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어 위



조세현작 '김정은'

탁가정이나 영아시절에서 생활하게 되는 아이들이 연간 1만여명. 이들 중 가정을 찾아 입양되는 아이들은 3천 900여명에 불과하며 6천여명은 사회 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 문의 062-222-934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미술문화발전연구회 발족

광주지역 작가 지원·인재 발굴 육성

광주지역 작가들의 전시회와 해외 진출을 돕고 미술인재를 발굴, 육성하게 될 문화예술 단체인 '(사)한국미술문화발전연구회'가 발족했다.

'한국미술문화발전연구회 창립 준비위원회'는 10일 광주시 남구 프라도호텔 1층 대회의실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창립준비에 들어갔다.

임병성 전 광주에총회장(한국화가), 김재규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총장, 박지택 광주시립미술관장(서양화가), 황영성 전 조선대부총장(서양화가), 유수종 전 무등예술관장(서양화가), 정광주 광주미술협회장(서예가), 최규철 광주에총회장(조각가) 등 36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 발기인 중 12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임병성 전 광주에총회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사)한국미술문화발전연구회는 ▲전시, 세미나, 아트페



10일 광주 프라도 호텔에서 광주지역 작가들의 전시회를 후원하게 될 문화 단체인 '(사)한국미술문화발전연구회'가 발족했다.

어 등 미술행사 개최 ▲연구와 교육, 홍보 활동 ▲연구소 및 기관 단체 설립 ▲인재 발굴과 육성사업 ▲국내외 교류 ▲창작 및 국제무대 지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보와 보물 등의 문화재에 붙였던 일련번호가 사라진다. '국보 1호남대문' '국보 53호 구례 연곡사 부도탑' 등의 명칭에서 번호가 사라지고 그냥 '국보 남대문' '국보 연곡사 부도탑'으로 부르는 것이다.

국보 일련번호 없앤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민속자료도 국보 지정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1일 '국보·보물' 등의 일련번호를 없애고,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등도 국보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정 순서 등으로 매겨지던 일련번호 때문에 '국보 1호가 최고'라는 등의 문화재 중요도를 따지는 기준으로 일반인들에게 오해

를 불러일으켰다. 국보의 일련번호를 없애고 사적 제○호, 건축문화재 제○호, 미술문화재 제○호 등 하위분류 번호를 매기게 된다. 국보 승격도 보물과 동급인 사적,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등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창덕궁, 제주자연유산, 무령왕릉 등도 국보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일본 명칭을 빌려 쓴 현재 분류 명칭도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누고 국보를 중심으로 하위 분류는 ▲보물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명승 등 4가지로 단순화하게 된다. 현재는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사적,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등으로 모호하게

분류돼 있다. 문화재청은 합동 문화재위원회와 전자공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하반기에 문화재보호법 개정 등의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소리나는 대로 표시돼 있는 경복궁(Gyeongbokgung), 불국사(Bulguksa) 등의 명칭도 외국인 이해하기 쉽게 경복궁은 'The Grand Palace of Joseon Dynasty', 창덕궁은 'The Palace of Secret Garden' 등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현재 1년가량 소요되는 국가 문화재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연희뉴스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Megabox.co.kr. 구.런던역사거리 ☎061544-0600. 1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세) 최고급관, 2관 무방비도시 (154), 3관 더 재킷 (154), 4관 P.S 아이러브유 (154), 5관 미스트 (154), 6관 기다리다 미쳐 (154), 7관 가면 (18세)/골벌레소동-더빙(전세), 8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세), 9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됐습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주요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엔터 시네마 entercinema.co.kr. 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마법에 걸린 사랑(전세)/황금나침반(전세), 2관 색즉시공2(18세)/내셔널트러저 (12세), 3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세), 4관 아이러브유(154)/아메리칸갱스터 (18세), 5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세), 6관 기다리다 미쳐 (154), 7관 무방비도시 (154). *널고 편안 국내-해외 주차장 300대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컬럼버스 시네마 columbus.co.kr.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아트 시어) 하남점 (무역역과롯데) 1관 마법에 걸린 사랑(전세)/나는 전설이다 (12세), 2관 알리쉬퍼랜드 (전세)/30데이즈 오브 나이트 (18세), 3관 무방비 도시 (154), 4관 무방비 도시 (154), 5관 내셔널트러저 (12세)/더 재킷 (154), 6관 골벌레소동 (전세)/내셔널트러저 (12세), 7관 기다리다 미쳐 (154)/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12세), 8관 마법에 걸린 사랑(전세)/미스트 (154), 9관 황금나침반 (전세)/P.S 아이러브유 (154), 10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12세). *호남 최대 주차장 *배달서비스 상영합니다 1588-7941 *성명연결 방문 (1인 or 2인) -1인

씨너스 전대 cinus.co.kr. 북구보전소 건너편 ☎511-1000. 1관 골벌레소동 (전세)/어거스터쉬 (전세), 2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세), 3관 무방비도시 (154), 4관 P.S 아이러브유 (154)/내셔널트러저 (12세), 5관 미스트 (154), 6관 기다리다 미쳐 (154)/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18세), 7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세). *매일실마 상영합니다 *무료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세너스북 사마(오전9시-개봉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무등극장 me12.co.kr. 총장로 1가 ☎232-9106. 1관 내셔널트러저 (12세)/제네시스 (18세), 2관 미스트 (154)/나는 전설이다 (12세), 3관 무방비도시 (154), 4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세), 5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154), 6관 기다리다 미쳐 (154), 7관 골벌레소동 (전세)/색즉시공2 (18세), 8관 P.S 아이러브유 (154), 9관 황금나침반 (전세)/더 재킷 (154).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암) 3시간 무료주차 *평일스케줄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 *편의시설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제일시네마 primuscinema.com/www.jelcinema.co.kr. 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무방비도시 (154), 2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154), 3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세), 4관 색즉시공2 (18세)/가다리다 미쳐 (154), 5관 내셔널트러저 (12세)/아이러브유 (12세), 6관 황금나침반 (전세)/나는 전설이다 (12세).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